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허풍 떨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결점을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5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1월 6일)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선생님도 어렵다”는 교과서 內 불교 서술

조계종 불교사회硏 세미나서 일선 교사들 토로

신성민 · 윤호섭 기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살펴보니 국정교과서 시절 〈국사〉와 불교 서술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성적 서술로 검정교과서에 올라오니 어려운 불교한자용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현재 한글 전용 세대에게 한자용어는 그냥 외계어입니다.”

현재 역사 교과서에서 불교 관련 서술은 과거 국정교과서에서부터 이어져 온 관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유 한자 용어는 암기요소에 불과해 학생들이 불교를 어렵게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김영주 국회의원실과 함께 12월 5일 ‘중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불교관련 서술체재와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왕호 대일고 역사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고기홍 동국대부속 영석고 역사교사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왕호 교사는 고교 역사교과서 불교 서술이 지나치게 관성적이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통일신라기 서술이다. 대부분 교과서들이 원효 · 의상 등의 사상들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오랜 관성의 산물이라는 게 조왕호 교사의 주장이다.

조왕호 교사는 “화쟁 사상의 경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화쟁 사상을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해야 한다면, 이것을 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 이는 교사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중관 · 유식 등 전문적인 불교용어 역시 학생과 교사 모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한글 전용 세대 학생들에게 이 같은 용어는 암기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학생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것’ 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중학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고기홍 교사는 교과서마다 서술의 소재, 내용 등이 천차만별이며, 이 같은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현재 학생들에게 교과서 내 불교는 여전히 ‘어려운 종교’ 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 교사들은 교과서 집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자료집과 교사들의 교육 참고 자료 발간 · 배포와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

고기홍 교사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기관에서도 풍부한 콘텐츠로 교사 연수를 진행하지만, 불교문화재 관련 연수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불교학술단체에서 불교문화재에 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불교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나리 동대부속고 교사도 “관성적 불교 기술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며 “종단 차원 교육 자료집을 제작해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참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과서 불교서술 수정 등의 활동을 펼쳐온 전문가들도 한자 중심의 표현을 교과서에 풀어쓰는 게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작해 현장서 용어의 이해를 돕는 게 순서임을 강조했다.

오랫동안 교과서 불교서술을 바로잡는 데 힘써온 김형중 동대부여고 교장은 “예전에는 정혜쌍수나 돈오점수 같은 표현을 당연한 듯 썼지만 사실상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거부감을 준다. 암기형식의 표현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교과서 집필진이 표현을 풀어써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용어해설집 등을 종단 차원서 마련해 출판사에 배포하는 단기적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역시 “한글반야심경의 해석을 놓고 여전히 분분한 것처럼 교과서 내 불교 고유 용어를 한글로 바꾸기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지도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교서술은 비단 역사교과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상을 담아내야 하는 윤리교과서 또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에 대해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리 분야에서는 철학적 개념이 많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교과서 집필자 중 불교전공자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교과서 집필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조차 불교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 제작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화쟁 · 중관 · 유식 등 전문용어
교사 · 학생 모두 이해 어려워
“한글 세대에 한자는 외계어
‘불교 어렵다’ 인식만 가중돼”
사상 중심 윤리도 마찬가지

집필자 · 교사 위한 자료 시급
종단 차원 연수 · 자료집 개발
일선 지도교사에게 제공해야



100년 뒤 다시 볼 찬란한 고려문화 이웃서기 918년 건국된 이래 474년간 한반도서 왕조를 이룬 고려. 불교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고려의 문화재가 총집합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대고려 918 · 2018’ 전이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국내서 최초로 열린 이 전시회를 다시 만나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 배기동 국박관장, 국박 홍보대사 배우 정일우 씨가 전시된 고려문화재를 감상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전법연구 산실 ‘불광연구원’ 사라지나

불광사 사찰운영위 해산 결정… 12월까지만 운영 예정

36차례 연찬, 7회 전법상 운영
교과서 · 명상전법 등 분야 개척
전법 · 포교연구 업적 상실 위기

전법 포교 연구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불광연구원이 문을 닫게 됐다.

불광사는 지난 10월 경 사찰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불광연구원 해산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불광연구원은 12월 말까지만 운영된다.

불광사 법주 지오 스님은 “재정적인 이유로 해산을 결정했다. 불사 채무에 대해 대각회 측에 원금 상환 유예를 요청한 상태”라며 “내부 직원들도 다른 방식으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퇴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불광연구원은 해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서재영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해고 통지를 내린 상태다.

불광연구원은 그동안 기존 불교계가 접근하지 못한 전법교화 영역을 개척해왔다.

불광연구원은 △광덕 스님의 사상과 업적 연구 △현대적 전법교화학 정립을 취지로 2010년 출범한 이후 36차에 걸친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그 범주는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미래’, ‘치유명상을 통한 신행의 확장과 전법’ ‘불교발전을 이끈 우바이들의 삶과 신행’ 등 다양했다.

총 7회까지 진행된 전법학술상도 학계의 지평을 넓혀왔다는 평가다. 전법학술상 수상자를 보면 군포교 분야의 함현준 군법사를 비롯해 불교복지포교 분야의 권경임 박사, 방송포교 분야의 최원섭 박사, 중국전법 분야의 김진무 박사, 대만전법 분야의 전영숙 박사 등을 비롯해 해외 렉소 쏘모 스님과 태국 프렘 소운사뭇 박사 등 원로와 소장, 국적을 불문하고 전법교화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학자들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노력했다.

함께 발표된 논문들은 사회 속 불교 방향을 진단한 특별기획과 함께 〈전법학 연구〉를 통해 총 13회 대중에게 소개됐다.

여기에 불광연구원은 최근 태국 출라롱콘대학 태국학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는 등 해외 전법 모범사례 연구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불광연구원이 이처럼 전법교화학 분야를 홀로 개척해 온 것은 불광사를 창건한 광덕 스님의 유지에 따른 것이었다. 광덕 스님은 생전 ‘바라밀연구소’ 설립을 통해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 전법교화와 불교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불광연구원은 그 뜻을 계승했다. 연구원은 광덕 스님 선양에도 앞장서 최근 광덕 스님 육성법문을 편집해 유튜브 채널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100편의 법문 영상을 13개 재생목록으로 분류해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갑작스런 연구원의 해산 결정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불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그간의 연구성과 때문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불광사는 전법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찰로 불교계 안팎에 위상이 높았다. 자연스럽게 전법교화에서의 광덕 스님과 불광법회의 면모를 알리는 효과가 컸다. 다시 정상화돼 위상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도 “불광연구원은 그동안 불교계가 주목하지 못한 학문과 대중불교를 아우르는 영역을 개척했다. 전법학 연구는 선대 조사들의 포교방법과 원력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 후학들에게 지남(指南)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산 천태불자 관음정진 현장 A5 | 함께가요 강의실 – 불교미술로 본 붓다의 세계(도현 스님) A6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해설!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
고등학교 교과서에 『금강경』 수록!
현직 고교 교장선생님이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그 핵심을 간결하게 해설, 정리하였다.
김형중 지음/신국판/184쪽/값 11,000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논쟁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는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역과 학파와 종파를 아우르는, 깨달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고찰!
불교학연구회 엮음/신국판/452쪽/값 25,000원

생활 속의 명상 안내서!
명상 매뉴얼
명상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누구라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수록! 명상도 과학적, 체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배철진 지음/국판 양장/296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